



http://yellow.metri.re.kr

봄의 불청객 '황사'에 대한 모든 것

글_ 김인순 전자신문 기자 insoon@etnews.co.kr

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이라고 한다. 황사란 말은 1910년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됐다고 한다.

사이트에서는 삼국사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황사에 대한 기록을 소개하는 등 황사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황사 관련 현상을 보면 174년(신라 아달라왕 21년) 음력 1월 '우토(雨土)' 라는 기록이 있다. '흙이 비처럼 내린다'는 뜻으로 하늘에서 흙먼지가 낙하하는 현상을 묘사했다. 이 당시부터 신라, 백제, 고구려에서 '우토' 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19세기까지만 해도 황사의 발생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지 못해 하늘의 신이 화가 나 사람을 혼내주기 위해 흙가루를 뿌린 것으로 믿었다고 한다. 조선 성종 9년 4월에 흙비가 내린 것에 대해 역사는 임금의 정치를 잘 못해 재난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황사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신비스러우면서도 해괴한 현상이었다.

사이트에서는 전세계 황사 발생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제공한다. 사하라, 영국, 중동, 파키스탄, 일본 등지의 황사 발생 현상과 사진을 볼 수 있게 꾸며졌다. 특히 황사 발생의 근원지인 중국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기록돼 있다. 중국 전체 면적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사막은 황사의 주요 발생원으로 황하강 분지와 고비사막, 중국 서부 및 북서부의 건조지역이다. 타클라마칸 사막에서는 일년에 33회 정도, 베이징 서부까지 이르는 바단자란 사막과 황토고원에서 많은 모래 폭풍이 발생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본 등지에 영향을 끼친다.

아시아 지역에만 나타날 것 같은 황사는 미국에서도 나타난다. 1930년대의 '더스트 볼(dust bowl)' 로 유명한 캔자스 서부, 오클라호마 등지에서 풍식이 발생해 황사를 일으킨다. 사이트에서는 이들 지역 외에도 다양한 황사 현상을 만나 볼 수 있다.

황사에 대비하는 방법도 알려준다. 사이트는 황사가 발생하는 현상을 확인하는 법과 가정, 학교, 농가의 대처 방법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다. '알기 쉬운 황사 이야기' 코너에서는 황사를 설명하는 그림과 동화 같은 내용의 황사 이야기가 소개돼 초등학생들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배려했다.



글쓴이는 송실대 정보통신공학과를 졸업 후 한국전파신문을 거쳐 2001년 이후 전자신문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黃砂). 올해도 노란 흙먼지가 봄나들이에 나섰던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황사가 찾아오면 마스크를 하고 외출을 하는 정도의 방어가 아닌 황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처도 좀더 과학적이지 않을까. 이런 정답을 주는 사이트가 바로 기상연구소 응용기상연구실이 운영하는 '황사(http://yellow.metri.re.kr)' 사이트다.

황사 사이트는 황사에 대한 정의는 물론 과거, 최근, 미래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또 황사를 연구하는 현황과 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이트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황사가 발생하는 전세계 지역의 황사 모습을 실는다면 황사와 관련된 전세계 사이트들을 모두 링크해두는 친절함까지 보여주고 있다.

사이트의 정의에 의하면 황사란 바람에 의해 하늘 높이 불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